

고부관계 연구에 대한 고찰

Review on the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Relationship Research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教授: 高 貞 子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ersity

prof. : Jung Ja Ko

영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講 師: 金 甲 淑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Lecturer : Gab Sook Kim

목 차

I. 서 론

II. 연구내용 고찰

III. 연구방법 고찰

IV. 연구결과 고찰

V. 결론

참고문헌

부 록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earch o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relationship. Also, this study is the preliminary research for more scientific and wider studies on the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relationship.

For the analysis, 39 articles which had been published from 1963 to 1991 were investigated by research contents, research method, and research finding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

- 1)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relationship researches are mostly analyzed the causes of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 2) Research method used is almost the survey research.
- 3)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earch findings because of the unexquisiteness of methodology and the difference of the subject.

I. 서 론

1. 연구목적

한국 전통적 가족제도의 질서는 부자관계를 주

축으로 한 서열관계로 볼 수 있다. 모든 서열관계는 우월한 사람, 열등한 사람, 그리고 동등한 사람사이의 관계를 포함하며 이러한 지위들 사이의 이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서열관계는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파괴적인 과정들에 대처하

며 권위의 신화를 창조하고 수행하며 영구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행한다. 며느리는 혼인으로 인해 친가에서 시가로 혼입해 음으로서 서열관계에서 최저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특히 모자관계가 밀착되어 있는 경우에 며느리는 아들을 빼앗는 침략자로 간주되고 시어머니는 자기의 성취지위에 경쟁자가 생겼다고 생각하여 자기방어를 위해 며느리에게 공격적 태도를 취하기 쉽다. 그래서 흔히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심리적으로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며 고부관계는 가족내 다른 성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원래 혼입한 여자라는 공통점과 부계가족의 주변인이란 입장에 있어 가장 가깝고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두사람의 지위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시어머니는 이미 오랫동안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아들을 출산 양육한 공적이 있으며 가사권의 결정권도 많이 행사하여 왔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가문의 전통을 전해주는 입장에 있으므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물리적, 경제적, 규범적 기타 권력의 행사를 통해 권위를 수행하고 재확립해 왔다. 따라서 며느리는 모든 것을 순응, 복종, 인내로 받아들이며 적응함으로써 그러한 체계의 존속 유지에 기여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1945년 해방이후 서구문화가 밀려오고 산업화 및 도시화 현상으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급격한 사회변화는 가족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동 가운데서 스스로 변화가 표출됨으로써 가족생활의 전체구조도 영향을 받게 되고 가족의식면에까지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가족의 규모가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뀔에 따라 개인주의적 평등사상에 기반을 둔 현대 핵가족 생활은 가족성원의 태도와 감정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믿음, 가치, 규범등이 변화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과정속에서 고부관계는 과거와는 또 다른 갈등양상에 처하게 되어 고부갈등에 대한 연구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존연구들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 있으므로 시대변화에 따른 기존연구들의 연구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발표된 국내논문들을 중심으로 고부관계에 대한 연구내용, 조사방법, 조사대상, 자료처리 등 연구방법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부관계의 결과를 고찰해봄으로써 고부관계 연구의 변화상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예측하여 고부관계 연구의 기본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고찰방법

고부관계에 관한 논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1963년 임동권의 연구부터 1991년까지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논문을 수집하기 위하여 가정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정신의학 분야의 학회지, 대학학술지, 학위논문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수집된 논문은 가정학 분야가 33편으로 가장 많았다. 논문의 출처별로는 석·박사 학위논문이 2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논문집이 12편, 대한가정학회지 5편, 문화인류학회지 2편, 신경정신의학 2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편등 총 44편 이었다. 그러나 이 논문중 동일논자의 5편¹⁻⁵⁾의 논문은 내용이 중복되어 제외시키고 39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I. 연구내용별 고찰

연구방법 접근방식에 따라 문헌연구와 질문지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경험적 연구를 분류하여 내용을 고찰하였다.

- 1) 이기숙(1977). 고부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5(2).
- 2) 이기숙(1977). 근대한국의 고부관계의 의식, 부산여대 논문집 9집.
- 3) 이기숙(1987). 가족갈등 유형화를 위한 연구, 부산여대 논문집 24집.
- 4) 고정자(1988).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4).
- 5) 고정자·김갑숙(1988). 한국사회에 있어서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동아논총 25집.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주로 사회학, 인류학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최초의 연구는 1963년 임동권의 <시집살이 요고>이다. 이 연구에서는 내방민요 중에서 결혼생활을 노래한 시집살이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이광규(1980), 장성진(1984), 최영철(1986), 최효일(1986)등도 시집살이의 과정을 소재로 한 민요, 설화, 속담등을 대상으로 거의 같은 맥락으로 시집살이에 관한 것을 정리 분석하였다. 한편 이광규(1975)는 가족의 구조적 필연성을 바탕으로 한 고부관계의 존재방식과 고부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며느리의 지위, 모자관계, 그리고 고부관계를 알아보았다. 특히 이 연구는 동일문화권의 한국, 중국, 일본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고부관계의 발생론적 일반론 및 앞으로의 조사연구의 작업적 가설이 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2. 경험적 연구

조사된 연구들의 영역을 살펴보면 동거·부양문제(12편), 가사주도권 문제(5편), 갈등원인(20편), 갈등 표출행동(10편), 조정행동 및 조정방안(10편), 제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6편) 등으로 갈등원인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류점숙(1969)은 서구적 부부중심 생활의 영향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가 점차로 약화되는 시점에서 부모와 기혼자녀와의 동거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이정우(1973)는 여교사를 대상으로 시부모와의 동거문제와 시부모의 노후부양문제에 초점을 두어 시가족관을 조사하였다. 임정자(1970)는 대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결혼후와 시모입장이 된 이후의 희망사항을 정리하는 피상적인 태도조사에 그쳤으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불평을 수집정리하여 고부갈등 원인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시했다. 고정자(1975)는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모해 가는 시점에서 고부간의 갈등, 가사주도권 문제, 상호독자적 생활영역등을 노인문제와 일부 관련시켜 고찰함으로써 노후대책문

제와 고부간의 문제해결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유가효(1976)는 고부갈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며느리를 대상으로 이경애(1981)는 시모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고부간의 갈등원인, 표출행동, 조정행동, 그리고 고부갈등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고부갈등문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이순형(1983,1984)은 가사주도권문제에 초점을 두고 고부가 수행하는 역할내용(대표역할, 봉제사 및 대사운영 역할, 금전사용 역할, 자원관리 역할, 경제관리 역할, 가사담당 역할, 육아 및 교육역할)을 알아보고 연령에 따른 가사역할 수행의 이양과정의 차이를 밝혔다. 김광일·남정현(1978)은 정신과 입원환자의 임상자료를 이용하여 고부갈등양상을 살펴보고 갈등의 심각성을 제시하였다. 김혜숙(1984)은 제주도 가족의 분가상태를 중심으로 고부간의 상호생활 관계를 파악하여 육지 전통가족의 고부관계와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김경희(1976) 이명숙(1985)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고부관계 태도를 고찰함으로써 앞으로의 고부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였다. 이기숙(1985)은 한국 가정에서 발생하는 고부갈등원인을 요인 분석을 통하여 갈등발생원을 일목요연하게 구조화시킴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에 필요한 척도개발에 공헌하였다. 박영숙(1987)은 Minuchin의 가족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고부갈등의 양상을 살펴보았으나 Minuchin의 이론은 갈등정도가 높은 가족의 치료를 위해 개발된 서구의 이론으로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에 적합한가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정자(1988)의 연구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고부문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대에 따른 고부문제의 변화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대산업사회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주부취업의 증가로 취업여부에 따른 고부관계를 연구(권정자, 1984; 지장순,1988)하거나 동거며느리를 중심으로 고부갈등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연구(박현옥,1989)하여 고부문제가 사회와 주위환경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정현(1990)은 고부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처행동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장선주(1989)는 부양자로서 딸과 며느리를 비교분석하여 급격한 사회변동의 과도기에서 바람직한 노후부양체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고부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동거부양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 고부관계에 대한 연구영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가 고부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1980년 중반부터 일부이기는 하지만 동거여부, 취업여부, 스트레스, 딸과의 동거등의 문제를 고부관계와 관련시켜 연구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가족복지의 측면에서 고부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기대된다.

III. 연구방법 분석

연구방법 분석은 분석대상 39편 중 문헌연구 7편을 제외한 32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형태

경험적 연구 방법은 1969년 류점숙의 <부모와 기혼자녀가 동거하는 경우의 실태와 전망>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대다수의 연구가 질문지에 의존하였다. 그외 사례연구(이명숙, 1986; 송경아, 1987; 성인애, 1991)를 분석하거나 임상자료(김광일·남정현, 1978)를 분석한 연구와 문헌고찰과 질문지를 병행한 연구(이기숙, 1975)가 있고 질문지와 사례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질문 조사와 심층적인 면접법을 통한 사례연구를 병행한 연구가 있었다(고정자, 1988). 또한 이영숙(1983)은 기존 4편의 논문을 분석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연대별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나, 분석대상의 논문이 조사내용과 조사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분석하여 결론을 내리는데는 문제점이

있다.

2. 조사대상

조사지역은 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9편, 군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편, 시·군지역을 동시에 대상으로 한 연구는 9편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대다수가 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중 12편이 서울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 조사의 일반화에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며느리, 시모, 미혼여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부를 동시에 표집한 것이 1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며느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9편, 시어머니 대상이 4편, 그리고 앞으로의 고부관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편 있었다. 며느리를 대상으로 한 연구중 3편(권정자, 1984; 지장순, 1988; 박현옥, 1989)은 고부 동거가정의 며느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박부진(1981)의 연구에서는 동거 별거 며느리를 표집하여 비교하고 있으나 그 외 논문은 동거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또한 고부를 동시에 표집한 경우도 동거가정의 고부를 표출한 경우는 3편(이순형, 1984; 이기숙, 1985; 송경아, 1987)에 불과할 뿐 동거여부가 밝혀져 있지 않다. 특히 류점숙의 연구에서는 시부모, 며느리, 아들, 미혼자녀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표집하였고, 박영숙(1987)의 연구에서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고부가 동거하는 가정의 시모, 며느리, 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정에서 야기되는 고부갈등의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본의 크기를 살펴보면 100~300명 사이가 1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류점숙(1969), 고정자(1975)의 연구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등 여러지역에 걸쳐 연구대상이 2000명이 넘는 대규모의 조사이다. 실제 연구에 있어 표본의 최소단위는 100명으로 잡고 있으나(조복희, 1993), 임정자(1970)의 연구에서는 여대생 53명 어머니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경섭(1988)의 연구에서도 표본(72명)의 크기가 적어 표집오차가 커질 위험

성이 높다 하겠다. 또한 면접법을 통한 사례연구의 경우 이명숙(1986)의 연구에서는 30사례중 9사례만 추출하여 제시하고 있고, 송경아(1987)의 연구에서는 사례(동일가정 고부 20사례)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지 않아 사례의 특성에 따른 정확한 원인 규명이나 고부관계 파악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표본은 모집단에 대해 대표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집을 할 필요가 있다. 표집방법은 임의표집한 연구가 6편, 의도 표집 5편, 유층표집 4편, 무작위 표집이 3편 있었으며, 조사대상 논문중 표집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논문이 12편으로 더 많았다. 그 중 권정자(1985)의 연구에서는 방법상 임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연구자는 무작위추출로 밝히고 있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자신이 제작한 경우와 타인이 개발한 비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상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제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27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타당도는 27편중 8편만이 타당도 검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8편 중 Thurston법에 의한 문항 타당도 검증법(고정자, 1975)과 안면타당도(이경애, 1981)를 사용한 것이 각각 1편씩이며, 그외 6편은(이기숙, 1985; 박영숙, 1987; 이경섭, 1988; 박현옥, 1989; 이정연, 1990; 한희선, 1991) 구성 타당도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신뢰도 검증을 한 것은 1985년 이기숙의 논문을 시작으로 8편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방법은 검사-재검사법(이기숙, 1985)으로 행한 것이 1편 있으며, 대다수의 논문은(장선주, 1989; 한희선, 1989; 이정우·안동선, 1989; 박현옥, 1989; 최동희, 1990; 이정연, 1990) 내적일치도 검증(cronbach 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뢰도 검증을 한 것으로 밝혔으나 검증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논문도 1편(권정자, 1985) 있었다. 또한

이명숙(1985)의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1번씩 4번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인터뷰하였으나 검사-재검사 test는 하지 않았다.

이상에서와 같이 1985년 이전의 연구에서는 1편(고정자, 1975)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한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연구 분석에 사용된 척도에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편(이기숙, 1985; 박현옥, 1989)의 논문은 척도에 대한 문항분석을 거쳐 신뢰도 타당도검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연구에 필요한 척도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4. 자료처리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사용한 자료처리방법은 크게 기술통계와 추리통계로 분류할 수 있다. 31편의 논문중 기술통계만 사용한 연구는 12편이었고 추리통계를 사용한 논문은 19편이었다. 그중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변인간 차이를 본 잘못도 있었다(황춘선, 1979; 이경섭, 1988). 추리통계를 처음으로 사용한 논문은 1975년 고정자의 연구로 χ^2 (chi-square)를 이용하여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이후 이순형(1984)의 연구를 시작으로 9편의 논문이 변량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이영환(1986)의 연구를 시작으로 6편의 논문이 보다 정교한 통계방법인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변량분석을 한 경우 사후검증 방법은 Scheffé-test(지장순, 1988; 최동희, 1990), Duncan-test(박현옥, 1989; 한희선, 1991)한 것이 각 2편씩 있었다. 그러나 5편의 (이순형, 1984; 권정자, 1984; 이영환, 1986; 박영숙, 1987; 장선주, 1989) 연구는 사후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결과 해석상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 특히 박영숙(1987)의 연구에서는 이질집단(시모, 며느리, 아들(남편))의 점수를 합한 합계점수로 변인간 차이검증을 하고 있어 각 집단의 변인간 차이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IV. 연구결과 고찰

고부관계의 연구영역은 동거부양문제, 가사주

도권 문제, 갈등원인, 표출행동, 조정행동 및 조정방안, 제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나타났으나 동거·부양문제와 가사주도권은 갈등원인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갈등원인에 포함시켜 갈등원인, 표출행동, 조정행동 및 조정방안, 제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등 4영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고찰하였다.

1. 갈등원인

고부갈등 원인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부터 지속적으로 고부관계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다. 임정자(1970)의 연구에서는 며느리의 말대꾸, 미숙한 살림살이, 경제적 무관심, 그릇된 자녀양육, 시모의 간섭과 잔소리, 며느리가 남편에게 하는 언행, 며느리의 외출, 간접적인 흉등이 갈등에 포함되었고, 황춘선(1979)의 연구에서는 경제권, 가사처리권한, 대사주도권 등 권력적인 면과 며느리의 친정 나들이와 친정문제, 아들부부의 외출, 며느리가 직업을 가지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었다. 1975년 고정자의 연구에서는 가사권 다툼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으나 권력구조적인 면과 애정구조적인 면을 분류하여 10년 동안의 변화상을 다룬 1988년의 연구에서는 권력구조적인 면에서 가사주도권으로 인한 갈등은 감소한 반면 경제주도권으로 인한 갈등이 높았다. 애정구조적인 면에서는 성격 부조화로 인한 대화 단절과 아들을 사이에 둔 애정갈등이 가장 높았다. 며느리를 대상으로 한 유가효(1976)의 연구에서는 애정구조적인 원인과 역할기대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이 높았으며, 박부진(1981)의 연구에서는 고부간의 성격차로 인한 갈등이 높았고 이명숙(1986)은 개인적 요인으로는 심리적인 요인이 가정환경적 요인으로는 생활습성 차이로 인한 갈등이 높다고 하였다. 한편 요인분석을 통하여 갈등요인을 구조화 시킨 이기숙(1985)의 연구에서 시모의 경우 며느리의 이기적 태도, 손자녀 문제, 며느리의 가족에 대한 소홀, 가정관리 태도의 서툰과 차이, 며느리의 표리부동한 태도, 며느리의 아들에 대한 태도, 반대한 결혼으로 구조화되었고, 며느리의 경우는 시모의 상대적 비교, 시모의 이기적

태도, 소외감, 시모와의 대화 결여, 친척 및 가습의 차이, 손자녀 문제, 친정문제 등 7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송경아(1987)의 연구에서는 시모의 경우 며느리의 이기적 태도, 미숙한 살림살이, 시모에 대한 불손한 태도의 순이었으며, 며느리는 시모의 간섭, 아들에 대한 애정독점의 욕구, 며느리의 의견 무시, 시모의 이기적인 태도로 인한 갈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며느리의 취업여부에 따른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에서(지장순, 1988) 취업 며느리가 비취업 며느리보다 갈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며느리는 가치관대립, 시모의 관용부족을 비취업 며느리는 역할기대와 모자간의 애정으로 인한 갈등을 지적하였다. 이정연(1990)의 연구에서는 며느리가 인지한 고부갈등은 꾸중을 심하게 하는 것, 시누이와 차별하는 것, 친정나들이와 친정식구의 출입을 싫어하는 것으로 인한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시모의 연령이 높고(고정자, 1975; 김광일·남정현, 1974; 박영숙, 1987) 동거가정이며(송경아, 1987, 고정자, 1988), 도시에 거주할 경우(박부진, 1981) 갈등이 빈번하게 야기되며 갈등이 높았다. 한편 며느리의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학력이 높으며 고부동거기간이 짧을수록 갈등이 높았다(박현옥, 1989). 갈등의 주원인은 며느리의 학력이 높을수록 성격차이에서 오는(박부진, 1981)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경아의 연구에서는 대졸이상의 며느리는 의견무시, 아들에 대한 애정독점 욕구로 인하여 갈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시모의 갈등원인은 시모의 소외감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높았고 배우자 유무와 건강상태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한희선, 1991) 시모가 결혼시 찬성한 경우 갈등이 적었다(박현옥, 1989; 이정연, 1990).

2. 표출행동

갈등은 외부에 표출됨으로서 알 수 있게도 되고 갈등해소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와같이 갈등표출이 내재적으로 갈등해소의 장치구실을 한다는

것은 Simmel(1955)의 안전판 이론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한국사회에서는 시집살이에 대한 민요, 가사, 속담 등으로 갈등을 해소시키고 승화시켜 나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갈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다. Levin(1961)은 갈등표출방법으로 신체적 공격, 공공연한 언쟁, 은밀한 언어적 공격, 기대배반, 회피로 분류하고 있다. 고정자(1975, 1988)의 연구에서는 혼자 생각한다는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980년대는 1970년대보다 이 율은 줄어들고 시어머니는 딸에게, 며느리는 남편에게 호소하는 은밀한 언어적 공격이 높게 나타나 시대에 따른 변화상을 보였다. 이경애(1981)의 연구에서 시모는 혼자 참는 행위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회피, 시집간 딸이나 분가한 아들집에 다니러 감, 며느리에게 직접 애기함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며느리를 대상으로 한 유가효(1976)의 연구에서는 은밀한 언어적 공격이 가장 높았고, 이명숙의(1985) 연구에서는 시모와 직접 대화하는 율이 높았다. 송경아(1987)의 연구에서 시모는 며느리와 공공연한 언쟁을 하는 반면 며느리의 경우는 의욕상실, 시가일에 비협조하는 기대배반 행위가 높았다. 이정연(1990)은 대처행동의 유형을 9개 요인으로 설명하였는데 그중 현실적응이 가장 주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그의 친구에게 호소하거나 이성적인 대처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시모연령이 높으며(고정자, 1975; 이경애, 1981) 동거기간이 길수록(이경애, 1981) 시모 자신이 참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졸 이하의 며느리와 고부가 별거하는 경우, 시모의 연령이 60대일 때 적극적인 행동표현을 하며 시모의 연령이 70대이며 대졸이상의 며느리와 고부 동거시에는 소극적인 행동표현을 보였다(송경아, 1987).

3. 조정행동 및 조정방안

갈등시 남편(아들)의 태도에 대한 반응에서 시모측은 아들이 관여치 않는다는 율이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며느리는 남편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

하는 것으로 반응하였다(고정자, 1975; 유가효, 1976; 권정자, 1984). 남편의 갈등해소 역할에 대해서는 며느리는 남편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유가효, 1976), 시모의 경우 과반수가 불만족하게 여기고 있어(이경애, 1981) 이로 인해 모자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이와같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고부갈등의 조정자로서 남편(아들)에 중점을 두어 연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남편(아들) 뿐만 아니라 시모는 딸이나 남편(시부)에게 의존하는 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가족내 타가족 구성원에게 까지도 범위를 확대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고부갈등은 동거시에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고부갈등의 조정방안으로 고부가 별거하여(이정우, 1973; 박부진, 1981; 고정자, 1988) 독립적 생활영역을 가지면서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하는 수정확대가족이 제시되었다(고정자, 1975). 또한 이정숙(1968)은 시모, 며느리, 남편(아들)의 정신적인 독립을 해결방안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고부관계가 노인의 권력자원의 감소현상과 젊은이들의 교환적 사고방식이 증가하는 현상으로(윤유경, 1986) 나타남으로써 시부모로 부터 댓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모 부양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갈등조정방안으로 시부모의 경제적 독립이 강조되었다(이경애, 1981; 권정자, 1984). 고정자(1975)의 연구에서는 딸과의 동거는 갈등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년부인의 경우 시가족보다 친정 가족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최신덕, 1985) 실제적으로 아들보다 딸이 친정부모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하고 있다. 최근 최동희(1989)의 연구에서도 딸과의 동거가 아들과의 동거보다 갈등이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병숙(1988)의 연구에서는 딸과의 동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딸과의 동거문제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변인별로 시모의 연령이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아들이 어머니보다 아내를 두둔한다고 생각하였으나(고정자, 1975), 이경애(1981)의 연구에서는 시모의 학력이 높을 때 아들의 조정역할에 불만족을 표명하였다. 또한 한희선(1991)의 연구에서는 생활수준이 낮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건강이 나쁠수록, 사회활동을 매일 하는 집단에서 불만족 나타내었다.

4. 고부갈등이 제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갈등은 상호작용이 긴밀한 관계일수록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고부간에 나타나는 갈등은 가족내 일체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유가효, 1976, 82) 고부갈등이 당사자의 친밀도, 모자관계, 자세대 부부관계, 손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고부당사자간의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가효(1976)의 연구(며느리 대상)에서는 '더 멀어졌다'는 반응이 28%로 나타났으나, 이경애(1981)의 연구(시모 대상)에서는 44.2%로 나타나 며느리보다 시모가 더욱더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박영숙, 1987). 특히 심한 경우 고부 모두 노이로제 증상을 일으키며 가출 분가 하는 경우까지 생겨(고정자, 1988) 고부문제와 정신적 갈등의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김광일·남정현, 1978). 변인별로는 시모의 연령이 높을수록(이경애, 1981; 박영숙, 1987), 배우자가 없는 경우(이경애, 1981; 한희선, 1991), 동거기간이 길며, 학력이 낮고(이경애, 1981), 생활수준이 낮고 건강이 나쁠수록(한희선, 1991) 더 부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그러나 시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갈등이 높다는 연구도 있었다(박영숙, 1987).

자세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고부갈등으로 인해 과반수가 부부싸움을 하는 것으로(유가효, 1976) 나타났으며 고정자(1988)의 연구에서도 시모와 친척문제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부갈등이 아들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와 아들부부 별거와 이혼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경향은 있으나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박영숙, 1987). 변인별로는 시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고부간의 불화가 자세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애, 1981).

고부불화시 모자관계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가효(1976, 며느리 대상; 19.3%)의 연구에서 보다 이경애(1981, 시모대상; 27.3%) 연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모와 아들을 대상으로 한 박영숙(1987)의 연구에서도 시모가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박영숙, 1987), 시모의 학력이 낮고(이경애, 1981; 한희선) 배우자가 없는 경우(이경애), 건강이 나쁠수록 부정적이었다. 이와같이 고부관계가 시어머니 우위형에서 며느리 우위형으로 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고부갈등의 희생자는 며느리일 때도 많지만 시어머니일 때가 더 많다(한남제, 1989, 222). 그러므로 고부갈등이 제가족관계에 부정적인 문제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문제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까지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고부갈등으로 인해 손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숙, 1987; 한희선, 1991). 시모의 연령이 높을 때, 배우자가 없는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 때, 생활수준이 중·하집단이,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하지 않는 집단에서 더 손자녀관계가 멀어졌다.

이상에서와 같이 고부간의 갈등은 고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전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부 불화시 시어머니는 아들 뿐 아니라 딸에게 호소하는(고정자, 1975, 1988) 비율도 높게 나타나 시누이 율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시누이 율케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1963년부터 1991년까지의 39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내용별, 연구방법별, 연구결과별로 고찰하였다.

고찰내용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연구내용은 문헌연구의 경우 민요, 설화, 속담들을 통하여 시집살이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고 경험적 연구의 연구내용은 갈등원인, 표출행동, 조정행동 및 조정방안, 제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사권문제, 동거부양문제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갈등원인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2) 연구방법은 대다수가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조사지역도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한지역만으로 편중되어 있고 표집방법 및 조사도구의 비과학성으로 제한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3) 연구결과는 제한적인 연구설계와 연구내용 연구대상의 차이로 일관된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부관계의 연구영역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개발이 요구되며, 고부갈등원인 규명에서 나아가 고부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고 고부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갈등의 해소 및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상호작용하는 가족집단의 역동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질문지, 사례분석, 면접, 관찰등 다양한 방법이 요구된다.

셋째, 조사대상자를 한가정의 시모와 며느리를 같이 표집하여 고부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고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들(남편), 딸(시누이)등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조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네째, 연구목적에 따른 과학적인 표집방법이 필요하며 표준화된 척도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료처리는 고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고 연구특성과 목적에 맞는 적절한 통계방법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모든 논문을 분석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수집과정에서 누락된 논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분석시 심층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등을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존연구에서 나타나는 연구방향 및 방법상의 문제점을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고부관계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고부관계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서병숙(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 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조복희(1993). 가정학 연구방법론. 서울 : 교문사.
- 3) 최신태(1985). 노년사회학. 서울 : 정문사.
- 4) Levin.(1961). Anthropology and the study of conflict : An Introduc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
- 5) Simmel, G.(1955). Conflict. Glencoe : The Free Press.

〈부 록〉 고찰 대상 논문 목록

연도	연구자	논제	연구방법	표집방법	조사대상	조사지역	자료처리	출처
1963	임동권	시집살이 論考	문헌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제 2호
1969	이정숙	주부와 시모와의 관계 고찰	"					대한가정학회지 7호
1975	이광규	부계가족에서의 고부갈등	"					서울대학교 인류학논집 1집
1980	이광규	민요에 비친 시집살이	"					한국 문화인류학 12집
1984	장성진	시집살이의 유형과 인물	"					효성여대 여성문제 연구소
1986	최영철	한일속담의 비교연구	"					여성문제연구 13집
1986	최효일	고부관계에 관한 사회심리적 고찰	"					단국대학교 논문집 20집
1969	류점숙	부모와 기혼자녀가 동거하는 경우의 실태와 전망	질문지	-	시부모 388 아들며느리 688 미혼자녀 1358명	대도시 농촌	백분율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0	임정자	가정생활과 시모와의 관계 고찰	질문지	-	여대생 53 어머니 40	전북	빈도	원광대학 논문집 제 5집
1973a	이정우	대도시 중류가정의 가족관계	질문지	-	시모 100 며느리 50	서울	백분율	대한가정학회지 11호 1권
1973b	이정우	여교사의 시부모관	질문지	의도표집	여교사 130	서울	백분율	대한가정학회지 11호 4권
1975	고정자	한국가정의 고부관계에 관한 연구	질문지	지역고려	시모 1113 며느리 1506	서울, 부산, 울산, 삼천포 수원, 함안 부산	백분율 χ^2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이기숙	한국가정에 있어서 고부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문헌 질문지	임의표집	여대생 105 직장인 88 주부 114 부녀자 142	부산	백분율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이부영 박성숙	농촌 부녀자의 가족관	질문지	-		농촌	백분율	신경정신의학
1976	유가효	한국 도시가족의 고부갈등의 실태와 전망	질문지	임의표집	며느리 207	서울	백분율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연도	연구자	논제	연구방법	표집방법	조사대상	조사지역	자료처리	출처
1976	김경희	미혼여성의 시어머니관	질문지	임의표집	여고생 180 여대생 150 직장여성 28	서울	백분율, χ^2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김광일 남정현	정신과 입원환자에서 본 고부간의 갈등	임상자료	의도표집	며느리 99 시모 14	서울	백분율, χ^2	신경정신의학 17권 1호
1979	황춘선	한국가정에 있어서 고부간의 불화 요인 분석 및 해소방안	질문지	-	시모, 며느리 각 500명	서울, 대구 부산, 경북 농촌	백분율	대구교대 논문집 15집
1981	박부진	한국 농촌가족의 고부관계	질문지	질문지	동거며느리 179 별거며느리 194	서울	백분율	한국문화인류학 13집
1981	이경애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질문지	생활수준 연령고려	시모 172	서울	백분율, χ^2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3	이순형	연령 및 지역변수에 따른 고부간의 역할수행의 변화	질문지	무작위추출	시모 655	대중소도시 농촌	백분율, χ^2	대한가정학회지 21권 2호
1983	이영숙	고부관계에 관한 연구	질문지	-	시모 200	제주도지역	백분율, χ^2	군산대학 논문집 5권
1984	김혜숙	제주도 가족의 고부관계에 관한 연구	질문지	-	며느리 275 고부동거 직계가족 120	대중소도시 농촌	백분율, χ^2	제주대학 논문집 17집
1984	이순형	의사결정 결과로 본 고부간 권력의 소재	질문지	무작위추출	고부동거정며느리 (취업 110, 비취업 110)	서울	변량분석 χ^2 , 변량분석	덕성여대 논문집 13집
1984	권정자	취업여부에 따른 고부관계 연구	질문지	유층표집	시모 187 며느리 324	부산	요인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5	이기숙	한국가족의 고부갈등 발생원에 대한 요인분석	질문지	유층표집	시모 187 며느리 324	부산	요인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이명숙	미혼여성의 고부관계 태도에 대한 비교연구	사례연구	임의추출	근로여성, 교사 대학생 각 10명 며느리 299	서울, 성남시 군산, 전주시	t-검증, 분산분석, 중다회귀분석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이영환	동거가족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질문지	질문지	며느리 299	군산, 전주시	t-검증, 분산분석, 중다회귀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연도	연구자	논제	연구방법	표집방법	조사대상	조사지역	자료처리	출처
1987	박영숙	Minuchin의 이론체계내에서 한국 가정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질문지	-	시모 295, 아들 181, 며느리 200	부산	t-검증, F-검증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송경아	고부간의 갈등원인 및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사혜연구 (면접법)		20가정	부산	빈도, 순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고정자	한국 도시 주부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질문지 면접	임의표집	시모 146, 며느리 141	부산	빈도, 백분율, χ^2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지장순	며느리의 취업여부에 따른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질문지	임의표집	사혜 30 가정, 고부동거	전주, 이리, 군산, 남원시	t-검증, Pearson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이경섭	고부문제에 대한 여성의 태도조사	질문지	-	며느리 298 (취업 134, 비취업 159)	서울, 충북아산	상관분석, 분산분석, 중다회귀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장선주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생활감정 및 교류	면접	유의표집	시모임장이 아닌 여성 72명, 아들동거노인 208, 딸동거노인 124	서울	χ^2 , t-검증, Anova, Pearson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박현옥	고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질문지	유층표집	고부동거가정의 며느리 502	서울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빈도, 백분율, 평균, 편차, T, F-test, 회귀분석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연도	연구자	논제	연구방법	표집방법	조사대상	조사지역	자료처리	출처
1990	최동희	주부가 받는 스트레스와 시부모 부양행동	질문지	유충표집	며느리 465	서울	평균, 편차, 백분율, T, F-test, 상관관계, 회귀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이정연	며느리가 인정한 고부갈등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질문지	유의표집	만며느리, 외며느리 120	서울	요인, 중다회귀, T-test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권2호
1991	한희선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질문지 통한 면접	무작위표집	시어머니 350	서울	빈도, 백분율, χ^2 , F-test, 상관관계, 요인분석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성인애	한국의 고부갈등	사례연구	유의표집	시어머니 16, 며느리 16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알 릫

1.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출판계획

권·호	원고 마감일	출판 예정일
11권 2호	1993년 10월 15일	1993년 12월말
12권 1호	1994년 4월 15일	1994년 6월말

※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원고제출처 : ①③③-⑦⑨① 한국가정관리학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내
 전 화 : 290-1180~1

3. 가정관리학회지 투고규정(표지이면 및 별지논문 게재요령 참조)에 어긋난 원고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워드프로세스로 제출하되, 원고의 분량은 컴퓨터 프린트 아웃 A4 용지(37자×22줄 기준) 25페이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제출시 다음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연구자	논문제목	총매수 (Page)	표 (Table)	도 (Fig.)	사	진	비	고

- ※ 학회지의 게재순서는 원고 접수순으로 합니다.
- ※ 논문제목, 연구자의 인적사항(이름·학교·과·직위 등)을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해 주십시오(이름은 한자로 기재).
- ※ 기고하실 때는 연락처 전화번호와 주소를 표지에 써 주십시오.

4.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나, 원하시는 호에 실리고자 할 때는 해당호의 원고 마감일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이 지나서 원고가 접수될 때는 자동으로 다음 호로 넘기게 됩니다.
5. 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2호부터 이사회에 따라 심사결과를 ‘가’ ‘수정후가’ ‘수정후재심’ ‘부’로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후재심’인 경우는 심사위원 확인후 그 다음호에 실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회원중 주소나 직위변동시에는 학회 간사 앞으로 곧 연락 바랍니다.
7. 본 학회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입회비 5,000원, 연회비 15,000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단체회원일 경우 : 입회비 10,000원, 연회비 30,000원).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학회지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8. 본 학회 회원으로 2년 동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